

1992 11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마가복음 1장 1절~8장 26절



충현기도원에 있었던 제1회 목회 내조자 기도훈련 광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마가복음 서론

마가복음은 복음서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책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대략 주후 70년 전후로 보고 있다. 저자인 요한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서기 또는 비서였다. 이 복음서는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된 복음이다. 이 복음서의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긴급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곧 하늘이 갈라지고” “곧 그 물을 버려두고”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는 유대백성과 이방민족들을 긴급하게 복음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을 속히 확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 마가는 “지금 당장 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장애는 늦게 시작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삶을 나눈 후에야 주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에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가복음 중심 말씀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이 말씀의 기록대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

11월의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2. 신성종 목사님의 능력있는 목양
3. 남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성령충만
4. 전교회의 기도운동
5. 새신자들의 교회출석과 양육
6. 봉사관 공사 완공
7. 금요찬양집회에 은혜충만

The Family Alta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마가복음 1장 1절~8장 26절



충현기도원에 있었던 제1회 목회 내조자 기도훈련 광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1 (주일)세례요한

찬송 57, 성경 막 1:1-8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1:3 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으나, 마가복음은 요한의 세례부터 기록하여 시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가는 구약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요한 자신을 가리키며 “주의 길”은 예수님의 길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 전파는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뱃세지의 선포입니다. 그의 뱃세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뱃세지를 들은 군중의 반응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죄의 자복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후 세번째 단계로 뱃세지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요한의 사역의 완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같은 단계로 말미암아 예수께 헌신 되었고, 또한 나의 주변에 믿지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단계를 적용시켜 그들을 주께로 돌아 오게 합시다.

- • 우리 모든 성도는 세례요한과 같은 존재로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외적으로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검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겸손이 저의 성도들의 온 심령에 가득차야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1:11)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실로 오랫동안 나사렛이란 한적한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첫번째 사건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사건이며, 두번째 사건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받으실때 먼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잘 이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직이나 제도, 전통 등을 무시하지 아니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 막 11:7)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세례에 복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 곧 그의 백성을 대신 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온전히 기쁘게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형태로 즉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 *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완전히 밝혀질 수 없는 하나의 신비에 속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기에 받으셨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약 1:13)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험은 그의 신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주의 시험은 사역을 위한 준비였으며,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여 시험에 이깁시다. 악에게 지지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3 (화)예수님 사역의 시작

찬송 439, 성경 막 1:14-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1:17)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외친 중대한 진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는 것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외치면서 그의 나라 확장을 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의 사역을 도울 자들을 부르시되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부르셨습니다.(고전 1:27) 겨우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며, 배에서 그물을 깎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서이고 사람에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있는 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 * *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할 때는 “요한이 잡힌 후”(14절) 임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마칠때 예수님께서서는 무대에 오르셔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침묵을 지킨다고(자의든지 타의든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폐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내가 딴 길로 빛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있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며, 면류관도 또한 옮기실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1:25)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교훈을 확증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사단을 정복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복음적 교훈의 의도와 경향을 암시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두가지 칭호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빼앗아가는 칭호 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하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엔, 기대되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거짓말장이로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귀신 자신이 예수님의 상대가 안되며 그의 능력에는 대항할 수 없음을 곧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 8:29)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막 1:24)

이 부르짖음은 바로 악령들의 가련한 소리로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는 마귀들의 결국이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 *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있는 새교훈입니다. 성도는 이 새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교훈이 나의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5 (목)전도와 치유

찬송 528, 성경 막 1:29-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1:39)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그가 부요하던, 가난하던, 많이 배웠든지 못배웠든지 성도이든, 하나님을 모르든지 간에 한번도 안 아팠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픈것 즉 병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모되며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병은 인간의 한계이며 그러기에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영혼과 더불어 육신의 각종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치유해 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의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의 본질적인 목적은 말씀의 전파입니다. 즉 치유는 말씀 증거를 위한 한 수단이며 방편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고민하는 개인과 가정, 이웃이 있으면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강건함을 얻읍시다.

- * * 치유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 저희(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31절) 고침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수종” 즉 봉사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는 영혼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제 바라는 충현의 가족과 이 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말고」(1:44)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미 예수님께 대해 많은 것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고 그 뿐 아니라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병 낫는 문제 이전에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은 사실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도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하면서 평생의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온 동리의 병자들이 다 모여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고치는 일에 시간을 다 소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육신의 병보다 그 원인인 마음의 병 죄를 고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몰래 그 마을을 빠져 나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문둥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 소문날 위험을 무릎 쓰고 그를 고쳐 주신 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적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시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환자의 경솔한 행동이 예수님의 전도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 * 세상에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지옥갈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가는 일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초점을 죄회개, 죄인 구원에 맞추시다.

7 (토)친구

찬송 88, 성경 막 2:1-12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2:2)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중풍병자가 친절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채로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 즉, 설교하시는 한가운데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그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여 주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의 중풍병이 아니면 그는 아마도 그리스도를 전혀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경험이 바로 자신의 경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체를 배우고, 질병은 영혼의 훌륭한 의사에게로 이끌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 * *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온 4사람의 친구들을 봅시다. 모두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한 병자를 4명이 메고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일에는 겸손과 양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봉사의 기초는 인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한 봉사였고 그기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2:17)

세리 레위의 근무처는 가버나움입니다. 세리들은 어디 서나 증오를 받았고, 또 가장 사악한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한 지역의 세금징수는 정해진 액수만 상납하면 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세리들은 힘을 다해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모든 자들은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여기에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위는 내가 응답하므로 완성됩니다.

* * 여기에 주님의 인간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모든 이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을 찾으나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사람은 건강한 자를 찾으나 주님은 병든자를 찾으시고 또한 고치십니다. 더구나 그 분은 우리를 영혼의 의사로 파송하십니다. 병든자를 싫어하는 의사가 있다면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9 (월)새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찬송 348, 성경 막 2: 18-28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2: 22)

본문에는 새포도주와 가죽부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을 혼합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 세상에 대한 봉사를 조화시키려 하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며 쾌락과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좇으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주인을 섬기다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민족을 흠으셨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 만족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사람들은 새포도주를 새부대에 넣듯이 예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 * * 헌 옷을 새 천 조각으로 깎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형겁을 대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수선하고 조정하려는 모든 일들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새것을 받아들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옳으나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3:4)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시대 가장 세력있는 당파였습니다. 율법의 해석들을 외형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고(마 23:2), 십일조를 바쳤고(눅 18:12), 금식했고(마 9:14), 기도했으나(막 12:40), 그들은 동시에 위선적이었고(마 23:15), 자기를 의롭다고 했고(눅 18:9), 주님을 가장 박해한 자들이었습니다.(마 9:3)

현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긍정하면서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지지 않은 결과이었습니다.

* * 어떤 형제를 심방 중에 만났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한 자임을 자부하는 자기의 의(義)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보여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완전함 속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완전함과 의가 그리스도에게 드러지지 않은 완전함이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러지지 않은 경건, 선한 행실, 덕을 세우는 삶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자이기를 빕니다.

11 (수)제자의 부르심

찬송 512, 성경 막 3:13-21

「이에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하며」(3:14)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있게하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히어 성령의 삶으로 마침내는 바꾸어 놓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전도,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 * 주님,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인줄 아나이다.

이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인줄 아나이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제자의 삶인줄 아나이다.

내가 의뢰한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나의 왕이시여

나를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충성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에 주셔서 분변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쾌락과 안일에 젖고

자기 만족의 높은 탑에 심취한다 할지라도

이 죄인의 마음 눈을 밝히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과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나게 하소서.

「만일 나라가…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3:24~26)

(1)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28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 오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다윗왕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한편 강도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가 문제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2)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28절)

성령 훼방죄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그들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불신앙의 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훼방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옥을 향한 발걸음에서 천성길로 향하도록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3) “스스로 분쟁하면…설 수 없고…망하느니라.”(24, 25, 26절)

좋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서로 다룹니다. 가정을 위하려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서로 분쟁합니다. 그러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면 설 수가 없고 망하는 것입니다. 참고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 * 저의 인생살이가 평화의 비둘기가 되게 하소서.

13 (금) 두 개의 가정

찬송 305, 성경 막 3:31-35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3:33)

(1) 두 개의 가정 :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정으로 부모 형제간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 자매로 된 가정입니다.

(2) 육신의 가정 : 성경은 육신의 가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가정생활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할 것을 가르칩니다.(엡 5:22-6:4). 부모는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 공경하고(특히 성경은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공경 잘 하라고 가르칩니다.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까지 가정에서 “순종하며 받드시며”(눅 2:51) 생활하였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자리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모친의 여생을 부탁하셨습니다(요 19:26-27). 육신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생활을 합시다.

(3) 하늘의 가정 :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참 교회를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간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사 27:10).

* * 나의 육신의 가정은 성경적입니까? 나는 하늘의 가정의 맛을 맛보며, 가정다움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4:20)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 길 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단단합니다. 설교를 들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예배시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 밭 표면에 뿌려진 씨앗을 채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음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2) 돌 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뒤집어 엎고 고치려 할 때는 “더 이상 깊이 관여 하지 마시오”라고 버팁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 행복을 끝까지 부여 잡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이 우상이니 그것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믿으면 되었다고 안위합니다.

(3) 가시밭과 같은 마음: 건강, 먹는 것, 입는 것, 자녀 교육, 인생살이에 대해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하는 데,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염려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면 염려가 그의 목을 조르듯이 그의 영혼을 죽이고 맙니다.

(4)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고 자신을 고치며 사는 모습입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어떤이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 * 말씀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 와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까?

15 (주일) 자라나는 씨

찬송 260, 성경 막 4:21-34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3:27)

(1) 사람이 씨를 뿌림 :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2) 신비스럽게 성장 함 : 뿌려진 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 합니다. “잘 자라나거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뿌렸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고전 3:7)이십니다. 자라나는 신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3) 서서히 성장함 : 씨앗이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은혜의 역사도 마음 속에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처음은 미약 할지라도 서서히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큰 참나무도 한때는 어린 나무였고, 힘 센 사람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4) 익으면 추수 함 : 밀이 어릴 때에 추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황금 빛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다 익어서 준비가 되었을 때 데리고 가십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죽음일지라도 가장 알맞는 때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요한의 형 야고보는 둘 다 한창일 할 때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이 잘된 일인 것처럼 그들의 죽음도 잘된 것입니다.

* * 싹이 날까 말까하여 아예 씨를 뿌리지 않는 잘못을 하지 맙시다. 지금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4:29)

(1) 예수님은 그의 증들을 폭풍 가운데 그대로 두셨음 :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죄용서와 평안과 영광 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어떤 환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참 인간이심 :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하늘나라의 일을 하신고로 날이 저물매 “주무시게”된 것입니다. 그 분은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자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히 4:15)

(3)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 : “잔잔하라. 고요하라” 는 말씀으로 거센 폭풍우를 잔잔하게 가라 앉히십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항해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 * 나와 우리 가정이 당하고 있는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폭풍우를 보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17 (화) 귀신들린 사람의 비극

찬송 393, 성경 막 5:1-20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5:8)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때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주 혹독한 귀신에 들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쇠사슬로도 제어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살지않는 무덤 사이에 그대로 방치되어 소망없는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에게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 주셔서 그 악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신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린 사람은 왜 버려진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사단이 역사할때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 지지만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우리 심령을 지배할때 상실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비어 있을때 온갖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 * * 귀신이 인간에 역사할때 도덕 부재의 현상이 나타나고, 귀신이 역사할때 사람이 난폭하여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도덕생활이 무너져 히피족이 생기고, 향락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귀신이 역사할때 자기 몸을 상하게 하여 마약, 대마초, 도박 등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 역사할때 하나님 형상을 잃어 버리고 금수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귀신병은 인간의 의술로서 고칠수 없습니다. 마귀보다 강한 능력의 하나님만이 고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인간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5:34)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혈루증이란 한없이 피를 흘리거나 하혈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함으로써 혈액 부족 결과를 초래하여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잃고마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이나 피를 쏟았기 때문에 심신이 심히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가지 병을 잘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그분을 만나 고쳐야 하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병은 너무 더러운 병이요 남들이 접촉하기를 꺼려 하는 병이어서 떳떳하게 나설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군중 틈으로 지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곧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하며 그 믿음을 칭찬 했습니다.

* *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이런 나을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만이 어떤 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게 합니다.

19 (목)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찬송 344, 성경 막 5 : 35-43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5 : 36)

본문 말씀은 21절 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먼저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그 지방의 유지요. 관직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체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애정과 아울러 예수님의 그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믿었기에 이런 겸손이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야이로는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사경을 헤메며 분초를 다투는 마당에 난데없이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 시간을 소비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급한 딸을 생각하면서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주님과 딸이 만나기도 전에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질듯 '철렁'했을 것입니다. 전달자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병은 고칠수 있지만 설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체념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인내의 덕분에 병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속에는 내가 네 모든것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 * *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권능을 베풀어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염려하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마지막날 재림때, 우리도 부르시며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것입니다. ○○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6:4)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 당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배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때부터 외모는 잘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적은 지식과 무지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출신성분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예수가 아니냐' 그들이 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죽은자를 살리는 신적인 권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출신성분, 곧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요, 천한 목수의 아들인 목수 예수로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존경받는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 * 오늘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할때 주님을 진정 알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깔보는 교만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의 잠겨진 문을 열때 주님을 바로 바라 볼 수 있게 됩니다.

21 (토)전도자의 자세

찬송 268, 성경 막 6:7-13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6:12)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사역에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대동하고 다니며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므로 제자들을 훈련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현장에 파송 시키므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아래 죄의종으로 전락하여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간보다 강한 마귀의 수중에서 신음하는 죄의종들을 이끌어 내어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마귀를 제어하는 힘이 없다면 전도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에 전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일꾼들에게는 먹을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굶주리고 있을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하며 엘리야를 먹이셨고 사렙다 과부를 동원하며 이스라엘 큰흉년을 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자를 찾아 머물러야 합니다. 복음사업에 합당한자는 전도자의 큰 도움이 됩니다. 루디아나 야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가이오등은 다 바울의 전도사역의 동역자요 합당한자였습니다.

- * * 오늘 우리는 참된 전도자나 혹은 전도자를 돕는 합당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6:18)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 감정에 못이겨 헤로디아의 딸에게 불필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음까 두려워 불의한 일을 또 저질렀으니, 곧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입니다. 불의한 일을 불의하다고 말한 것, 즉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합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죽이기로 결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불의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랄한 여자에게 미움을 샀고 급기야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허무한 죽음을 죽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 * *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23 (월) 주님의 축사

찬송 453, 성경 막 6:30-44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19:16)

예수께서 목자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군중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남자만 오천 명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저물고 빈 들에서의 군중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을 들으시고 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희망에 없는 일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사하심이 필요합니다.

* *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태를 비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축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6:50하)

밤중 세 시에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큰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유와 생명이 위험합니다. 바다에 삼키우느냐 파도에게 이겨 살아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종종 인생은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때때로 사나운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배와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바다가 잔잔해진 이유를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특히 많은 병자들이 몰려 왔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와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수) 참다운 정결

찬송 200, 성경 막 7:1-23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7:16)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즉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정과 정결은 외적인, 의식적인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정결과 부정은 결코 밖에 속한 손이나 음식물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안에 속한 마음의 상태로써 결정된다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거하신 열두개의 항목을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훼방, 교만, 광패 입니다. 누가 감히 완전히 깨끗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 * * 인간은 실상 하나님과 사귄 수 없도록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로 손을 씻듯이 우리 마음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율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7:28)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절한 요구를 지닌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구주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 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그 여인의 믿음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 기도한 후에 실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다가 제자들의 독촉에 하신 대답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물러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히려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 애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무관심한 듯한 모습도 이 여인의 결심과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에도,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신앙과 겸손과 인내의 미덕이 조화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극찬하셨습니다.

* * 이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 인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야겠습니다.

27 (금)에바다

찬송 257, 성경 막 7:31-37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7:34)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 옮겨 가십니다. 성경 지도를 펴놓고 예수님이 지나신 지역을 살펴 보십시오. 두로→시돈→데가볼리→갈릴리 호수.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려면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북쪽인 시돈으로 가셨다가 이방인들의 땅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기간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문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예수님은 자신의 소문이 덜 퍼져있는 이방땅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가지고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 오셨을 때 귀머거리인 동시에 병어리인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서 혀와 귀를 어루만지시며 “에바다”(열려라) 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탄식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과 귀가 막힌채 답답한 세월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대한 탄식도 탄식이지만 기적을 보여 주시면 주실수록 점점더 막혀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에바다”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의 입과 귀가 열릴 때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열려 회개의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은 여전히 놀랄 뿐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복음을 배울 자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병고치는 기적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우리의 전도의 말 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8:1하)

제 아버님이 농장을 경영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는 그저 일년에 한두차례 시골을 내려가 몇일 정도 아버님 곁에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과수원으로 나가십니다. '애야, 사과나무 전정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포도순은 어떻게 따야돼' 그 철에 따라 과수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셨습니다. 또 농사철이 끝난 겨울에 내려가게 되면 '애야, 올해는 영농준비비가 이렇게 들었고 총 예산 수입은 이렇게 된단다' 하시면서 그간 판매한 장기와 또 창고에 들어있는 과일의 양을 기록한 장부를 일일이 들추시면서 그해 농사와 내년 농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농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아들과 의논하시고 농장일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애들아,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의논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은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여기는 벌판인데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 *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일을 우리에게 의논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맡아 책임있게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29 (주일) 두가지 누룩

찬송 410, 성경 막 8:9하-21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8:15)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일반 평민들입니다. 이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였습니다. 이 세부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 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하는 평민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비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룩에 빗대어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 하며 엉뚱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거듭 설명해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의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신들의 사고 방식, 율법해석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헤롯당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 * *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은 쉬운 말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최고인줄 아는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사람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었음을 기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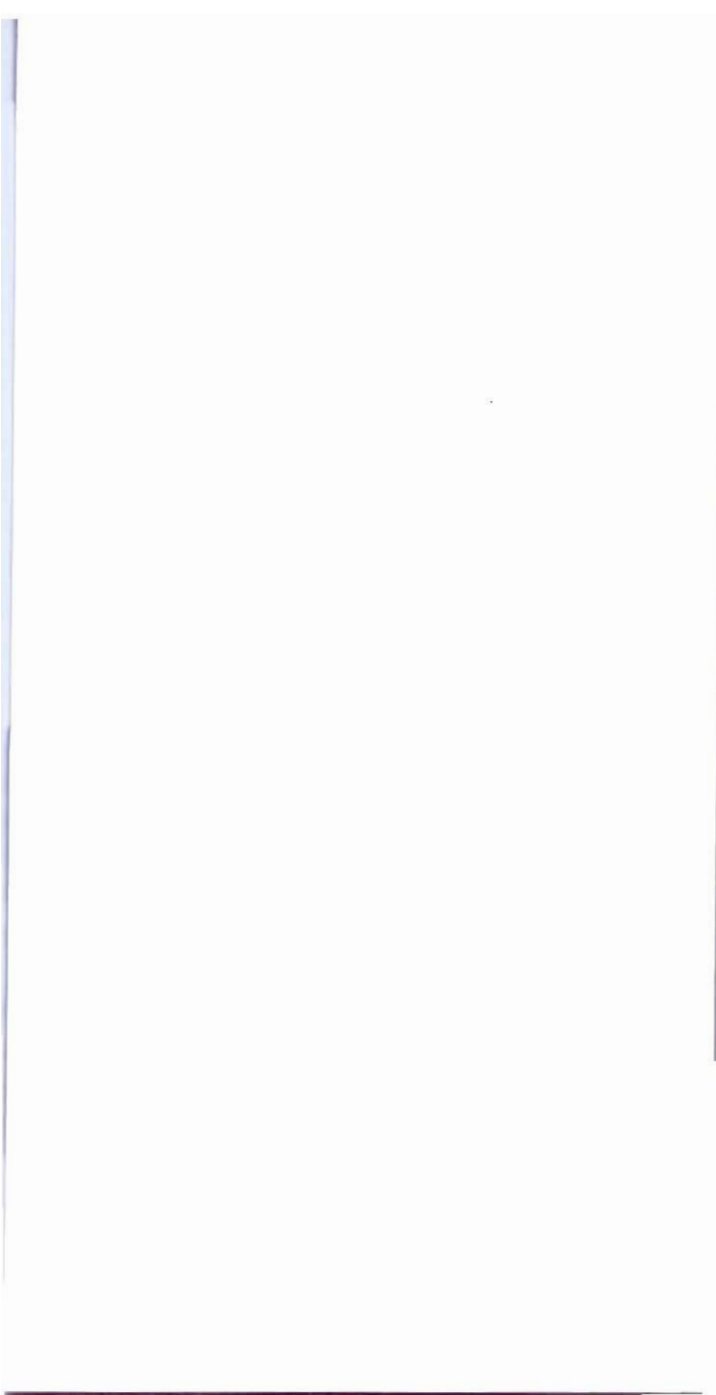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8:23)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여러번 나옵니다(마 9:27-31, 막 8:22-26, 10:46-52, 요 9).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눈감은 소경이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23절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문제를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 그곳에서 ‘이젠 어떠니, 이젠 어떠니’ 일대일로 대화하시며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문제를 다 해결하셨지만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한사람씩, 한사람씩 따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보시고 그 특성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주십니다.

*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같은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되 우리와 일대일로 만나셔서 일대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